

【코로나】 <12월 9일> 고치현 지사 부탁 말씀

- 고치현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에 오늘 고치현 「감염증 대책 기준」 단계를 「특별경계(빨강)」로 격상하였습니다.
- 현재 감염상황을 보면 최근 일주일 간 감염자수와 최대확보병상 점유율 등이 정부에서 제시한 2단계를 넘었습니다.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-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절반에 이르고 있어, 고치현에서는 지역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「술자리·회식」 감염, 70세 이상 고령자 감염이 눈에 띕니다.
-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주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
- 첫째, 주민 여러분께 외출자제를 부탁드립니다. 다만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병세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「주류 판매 음식점」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
- 둘째, 회식은 「4명 이하」, 「2시간 이내」를 기준으로 최대한 「적은 인원」, 「단시간」으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의 사항은 앞으로 일주일 간의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대책강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.
- 「경제활동회복」과 「감염확산방지」 모두 중요하나 지금은 「감염확산방지」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.
- 따뜻한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「술자리·회식」에 더욱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9일

고치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장
(지사) 하마다 세이지